

研究論文

‘신민족주의’사관 재고
- 손진태와 식민주의 -*

남근우**

I. ‘신민족주의’론의 과제	IV. ‘신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발생
II. 민족생활에의 ‘暴戾的’ 태도	<참고문헌>
III. 농촌오락의 ‘총력체제화’	<국문요약>

I. ‘신민족주의’론의 과제

최근 손진태에 관한 10여 편의 글을 모은 논문집이 출간되었다. 한국역사민속학회에서 펴낸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다. 이 논문집에는 손진태의 학문과 사상을 바라보는 논자들의 다양한 입장과 시선이 존재한다. 주장현이 그 刊記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아닌 말로 적극적 지지과로부터 소극적 지지, 비판적 지지, 냉엄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는데, 내 일련의 손진태론은 “그러한 상반된 입장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¹⁾고 한다.

주장현이 거론한 줄고는 한국역사연구회의 기관지에 기고한 「손진태의 민족문화론과 만선사학」과 위 책에 실은 「‘토민’의 ‘토속’ 발견과 ‘신민족주의’」일 것이며

* 이 논문은 2004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4-002-A00014).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민속학 전공[kwnam@aks.ac.kr].

1) 주장현,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 刊記」 당대 역사민속학자들의 역사민속학적 자료를 곁하여,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민속원 2003), 12 쪽

실제 그 두 글에서 나는 기왕의 연구에서 일반화된 예정조화적인 손진태 읽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여기서 ‘예정조화적인 손진태 읽기’란 처음부터 그의 학문과 사상을 조화로운 통합체로 이해하려는 호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가 남긴 다양한 텍스트들을 해방 후의 ‘신민족주의’로 수렴하려 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신민족주의 사학으로의 자연스런 귀결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손진태의 언설들은, 그것들이 발화된 시·공간과 그 정치사회적인 맥락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끊어 읽히는 경우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그의 ‘신민족주의’는 일제 식민주의 사관에 대한 안티테제로 우상화되었다.

상기한 두 편의 줄고에서는 이러한 종래의 호의적인 시선과 끊어 읽기를 지양하고, 식민지 조선의 민속과 민중과 민족에 관한 손진태의 관심과 언설들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그것들이 표출된 콘텍스트로 되돌려 읽어보았다. 그리고 특정한 주제와 주제 사이의 유기적인 관련에 유의하며, 아울러 동일 주제를 다룬 중복논문의 존재와 그것들의 ‘미묘한’ 차이를 주목하면서,²⁾ 그의 관심과 언설들이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주되어 나타나는지, 그 변주의 배경과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종래의 통설과 달리, 손진태의 ‘신민족주의’는 일제 말기의 참담한 민족적 현실을 타개하려는 실천성을 띤 사관이 아니라, 게다가 해방 이전의 손진태는 식민주의 사관에 대한 저항 담론을 펼친 적이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管見에 대해선 역사학계와 민속학계를 중심으로 위화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³⁾ 하지만 그것을 반론의 형태로 명시한 이는 김수태가 유일

2) 손진태가 남긴 글 중에는 중복논문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1920년대 중후반 한글이나 일본어로 쓴 논문을 30년대 전반에 일본어나 한글로 발표하거나, 혹은 해방 이전에 일본어로 쓴 논문들을 모아 해방 후 단행본으로 상재하는 과정에서 침삭과 보정을 가한 경우가 많다. 자세한 것은 좋고, 「손진태의 민족문화론과 만선사학」, 『역사와 현실』, 제28호(1998) 참조

3) 가령, 손진태의 유고집 발간에 즈음한 최광식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그 좋은 보기다. “최근에는 그의 학문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은 손진태선생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해방 전에는 민속학연구를 하고, 해방 후에는 역사학연구를 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마치 일제의 식민사학과 관련시키려는 것들이다. 그러나 최근에 발견된 그의 유고집과 연구노트를 보면 그는 1934년 귀국 후 연희전문과 보성전문에서 문명사 강의를 맡으면서 역사학연구를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로 발견된 자료를 중심으로 손진태 선생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한다.” 최광식, 「머리말」, 고려대학교 박물관(편),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1): 조선상고문화의 연구』(고려대학교 박

하다. 그는 “기존의 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건에 대해 “자세한 비판”⁴⁾을 가하고, 反식민주의 사관으로서 ‘신민족주의’ 사학의 역사적 의의를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⁵⁾

김수태의 ‘자세한 비판’ 중에는 수용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고민거리를 일깨워준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건의 논지를 바꿔야 할 정도의 설득력 있는 ‘비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지면 관계로 그의 ‘자세한 비판’에 대해선 拙著 『민족문화학』의 流産: 손진태와 ‘신민족주의’⁶⁾(가제)를 통해 ‘자세히’ 응답키로 하고, 이 글에서는 새로 발견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손진태와 일제 식민주의의 관계성을 몇 가지 국면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김수태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갈음하겠다.

우선, 다음 항의 「민족생활에의 ‘暴戾的 태도」에서는 1920년대 후반 당시 “조선학의 대 권위”⁶⁾였다는 마에마(前間恭作)가 손진태에게 보낸 편지글을 살펴보겠다. 더불어 그 편지글의 시조론과 관련하여 손진태가 20년대 중반에 이미 일본어로 발표한 일련의 ‘국민(민족) 문학’론을 주목해보겠다. 이를 통해 조선의 시조와 거기에 표현된 조선인의 삶과 민족성을 손진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의 시조론이 사대주의 지배 담론과 그로 인한 조선 ‘멸망의 이야기’와 연동하는 국면을 짚어보겠다.

또 하나의 국면으로, 다다음 항의 「농촌오락의 ‘총력체제화」에서는 손진태가 1941년에 발표한 농촌오락 진흥론의 식민주의를 살펴보겠다. 익히 알려진 대로 손진태는 해방 후, “내가 신민족주의 조선사의 저술을 기도한 것은 소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던 때부터이었다”⁷⁾고 말하고 있거니와, 바로 그 직전에 발표한 시국 영합적인 농촌오락론의 존재는 이상화된 그의 ‘신민족주의’를 재고하는 계기가 될 수

물론, 2002a). 손진태의 학문을 편이상 해방 전의 민족학연구와 해방 후의 역사학연구로 ‘과약’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한 ‘과약’ 자체가 일제 식민주의 사학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 발견된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들을 망라하여 손진태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은 새삼스레 지적할 필요도 없다.

- 4) 김수태, 「신민족주의사학론」,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민속원 2003), 189쪽
- 5) 김수태, 「손진태의 식민주의사학비판 재론」, 『한국사학사학보』, 제2호(2000).
- 6) 손진태, 「序說」, 『朝鮮古歌謠集』(刀江書院 1929), 10쪽
- 7) 손진태, 『조선민족사개론』(을유문화사, 1948); 『손진태선생전집』(1)(태학사, 1981), 282쪽.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신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발생」에서는 일본제국의 사회학자 고마쓰 겐타로(小松堅太郎)가 펼친 일련의 민족주의론 특히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대동아공영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제시된 ‘新民族主義’를 살펴보겠다. 그 또 하나의 ‘新民族主義’가 손진태의 그것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지 고찰함으로써 종래의 연구에서 일반화된 ‘신민족주의’ 사관의 성립 배경을 재검토해보겠다.

II. 민족생활에의 ‘暴戾的 태도’

1920년의 도일부터 1934년 조선으로의 귀향에 이르기까지 손진태는 학문 활동의 절반에 육박하는 시간들을 ‘내지’의 동경에서 보냈다. 이 14년간의 동경생활은 그의 학문과 사상 형성에서 매우 중요했다. 그 사이 와세다대학의 니시무라 신지(西村眞次)와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동양문고의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등, 당시 사계를 대표하던 그들이 손진태의 학문과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미 줄고8)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여기서 거론하려는 구보타 우쓰보(窪田空穂)와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역시 손진태가 추구한 1920년대의 ‘국민 민족’ 문학 연구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후자는 손진태의 『朝鮮古歌謠集』 상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다.

우선 歌人이자 문예지 『國民文學』의 창간자로 널리 알려진 구보타는, 손진태가 와세다 제1고등학원에서 수학하던 시절 1, 2학년 때 국어와 작문을 담당한 이다9) 손진태에 따르면, 1921년의 1학년 작문 시간에 제출해야 할 과제의 소재를 찾지 못해 헤매다가, 할 수 없이 조선의 ‘古歌’ 몇 수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약간의 사건을 달아 제출하게 된다. 다음 학기 초 손진태에게 되돌아온 과제물에는, 일본어 “번역은 그다지 맛갈스럽지 않지만 이를 조직적으로 일본에 소개해볼 생각은 없는가.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라는 평이 쓰여 있었다. 손진태가 그

8) 남근우, 「‘손진태학’의 기초연구」, 『한국민속학』, 제28호(1996); 남근우, 「손진태의 민족문화론과 만선사학」, 『역사와 현실』, 제28호(한국역사연구회, 1998).

9) 와세다대학 대학사 편집소가 제공해준 각년도 별 「學科配當表」 참조.

‘의미 있는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구보타) 선생의 이러한 말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¹⁰⁾이하 인용문 속의 ()는 내가 덧붙이거나 토를 단 것임이며, 실제 그는 손진태의 첫 단행본인 『조선고가요집』의 출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번역문 침삭과 많은 격려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 『조선고가요집』이 상재되기 약 1년 전인 1928년 여름, 손진태는 “최후의 교열을 받기 위해” 탈고된 원고를 지참하고, 당시 ‘조선학의 대 권위 인 마에마를 찾아간다.¹¹⁾ 그 결과 “나의 오역은 하나하나 (마에마) 선생에 의해 모두 지적을 당하고, 내가 선생에게서 원고를 되돌려 받았을 때는 백여 장의 附箋이 달려 있었다.” 이와 같은 “선생의 주도면밀한 교열에 의해 그다지 부끄럽지 않은 번역에 이르게 되었다”¹²⁾고 한다.

그러면 마에마가 교열 과정에서 붙인 ‘백여 장의 부전 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펴낸 손진태 유고집이 주목된다. 유족들이 기증한 각종 자료들을 모은 이 유고집 제2권에는 마에마가 손진태에게 보낸 서간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편지글들이다. ‘조선학의 대 권위’답게 조선의 시조집과 시조 작가 및 고어, 卑言野語, 자연 현상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당시의 손진태가 “平身叩頭할 수밖에 없었던”¹³⁾ 지적들이 가득한 까닭이다.

그러한 지적들 중에서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명칭에 대해서’의 卑見을 채용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¹⁴⁾로 시작되는 편지글이다. 여기서 ‘명칭에 대해서’란 “조선의 古歌를 한마디로 時調라고”¹⁵⁾ 통칭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 생각되며, 그 ‘비견’ 채용에 따른 감사의 말에 이어, 마에마는 조선의 ‘고가’에 대한 손진태의

10) 손진태, 「序說」, 『朝鮮古歌謠集(刀江書院 1929), 5 쪽
 11) 『조선고가요집』의 「後序」를 쓴 이시다(石田幹之助)에 따르면, 손진태에게 “우리 조선학의 耆宿인 마에마 선생의 문을 두드려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권한 것은 자신이며, 마에마에게도 삼가 가르침을 주실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후서」 3쪽). 마에마의 ‘조선학’에 대해서는 末松保和의 「前間先生小傳」, 『前間恭作著作集』 下卷(京都大學 國文學會 1974) 참조
 12) 손진태, 앞의 책(1929), 10~11 쪽
 13) 위의 책, 10쪽
 14) 고려대학교 박물관(편),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2): 우리의 민속과 역사』(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b), 141 쪽
 15) 손진태, 앞의 책(1929), 11 쪽

‘비평과 推斷’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그 “비평 추단에 관한 부분은 도저히 찬성할 수 없고, 실례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미숙한 것이라 생각”되고, 또 “그 논평은 졸지에 만들어진 것 같으며, 훌륭한 저술(역서)에 비해 너무나도 볼품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약간의 부전을 달아 내 생각하는 바를 적었으니…화내지 말고 읽어 주십시오”¹⁶⁾ 라고 적고 있다.

그 ‘부전’을 보면, 손진태가 조선의 시조 번역에 즈음하여 붙인 ‘비평과 추단’에 대해, 마에마는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중에서 특히 문제인 것은 위의 소제목에 보이는 ‘暴戾的 태도’다. 즉, 손진태가 “조선의 전통적인 민족 생활에 대해서, 외국인 여행객 내지는 저널리스트와 같은 피상적인 비판을 가지고 그것을 폄하하는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잠시 (内地) 대중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하는 말이라면 허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색과 연구를 직분으로 하는 학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¹⁷⁾고 마에마는 꾸짖고 있다.

그렇다면 마에마에게 질타를 당한 손진태의 ‘폭력적 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니, 손진태는 진정 ‘조선의 전통적인 민족 생활’에 대해 사리에 어긋나는 모질고 사나운 태도를 취한 것일까? 기왕의 한국 사학사와 민속학사에서 ‘민족의 발견자’, ‘민중의 발견자’ 등으로 호평을 받아 온 손진태인 만큼 그가 과연 그러한 ‘폭력적 태도’를 취했는지 아닌지, 그 사실 여부가 궁금해진다.

마에마의 ‘부전’에 따르면, 조선의 문화사 중에는 “신라와 고려의 사찰을 중심으로 한 찬란한 문화(와)…조선조의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端麗한 문화가 존재하는데, 이 양자는 “우리들의 사색, 연구에 무진장한 資材를 공급한다” 이처럼 조선의 문화사에는 ‘찬란한’ 불교문화와 그 뒤를 이은 ‘단려한’ 유교문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손진태 “당신 설의 主意로는, 조선인은 비참한 생활을 계속해왔으며 그래서 줄곧 지지러져 있다가 때론 비분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또) 支那文學을 무조건 모방하여 그것을 읊조리거나 하고, (조선의) 민족성이라고 생각되는 우정이 때때로 어렴풋이 보이는, 바로 그런 게 조선인의 歌文 문학인 것처럼”¹⁸⁾ 읽힌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지글에 보이는 마에마의 비판은 다음의 『조선고가요집』에 부친

16) 고려대학교 박물관(편), 앞의 책(2002b), 141 쪽

17) 위의 책, 142 쪽

18) 위의 책, 142 쪽

그의 서문¹⁹⁾과 대조해 볼 때 그 의미하는 바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마에마에 따르면, 중국문화와 일본문화가 동양문화의 전부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으로, 또 하나 조선문화의 존재를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조선을 支那의 연장(아류)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전연 그렇지 않다.” 중국과 다르고 일본과도 다른 조선문화의 독자적인 특징이 있다. 이를테면, 조선인의 “과거 민족생활에서는 호족 割據라는 事象이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봉건(제)와 같은 것은 물론 생길 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남의 공격을 걱정할 염려가 전혀 없고, 동시에 적개심이 고무되지도 않았다” 그래서인지 조선인의 “민족생활에는 복잡한 조직적인 게 발견되지 않는다 일가족을 단위로 막대한 민족생활이 영위되고, 향리나 생업에 의한 단결이라는 것도 현저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것도 없고, 그저 부자형제의 관계, 남녀노소의 차별, 그 가족의 혈통이나 素性에서 나오는 의례의 범주가 있는 까닭에 질서가(자연스레) 유지될 뿐이다.”

일반의 기풍이 위와 같기 때문에 “힘의 집적이라는 게 자신의 지위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효과가 의외로 적고, 그런 까닭에 資財에 대한 집착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 프랑스 선교사들도 놀란 박애란 바로 이런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호화와 사치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선망이 열렬하지 않다. 그로 말미암아 대중은 아주 작고 허름한 주거에 살며 가재도구라는 것도 별로 없고, 안분지족하며 물질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를 피상적으로 그저 “외관만을 보고서 폭정의 결과 혹은 萎靡와 퇴폐의 현상이라고 속단하는 이도 많지만, 그것은 전혀 헛다리를 짚은 것으로 실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한 생활은 그다지 변화가 없

19) 『조선고가요집』에는 세 사람이 서문을 부치고 있다. 맨 처음이 앞서 소개한 구보타, 그 다음이 마에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세다대학 사학과 교수인 쓰다 津田左右吉 다 구보타와 쓰다가 3쪽의 짧은 서문을 부치고 있는 데 비해, 마에마는 무려 12쪽에 이르는 서문을 부치고 있다 종래의 손진태론에서 인용한 『손진태선생전집』에는 이 12쪽 중에 앞의 4쪽이 보이지 않는다. 그 4쪽의 내용을 보면, 우선 손진태가 제공하는 “이 고가요집은 손씨 자신의 조상들 생활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문헌”이라는 점 그리고 “그 隣人の 생활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 고가요집에서 취급하고 있는 조선의 문화나 문학이 동양문화, 동양문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그 실질에 대해 우리들이 어떠한 견해를 가져야하는지, 내지는 갖는 게 정당한지에 생각이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前間恭作, 「孫晉太氏の朝鮮古歌謠集の發刊につきて」, 『朝鮮古歌謠集』(刀江書院, 1929)]고 주장한다

는 것이다.” 혹은 이를 보고 “遊惰라는 것을 연상하는 外客도 많다 이것 역시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조선인들 중에는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는 극히 드물고, 실은 모두 분수에 상응하여 근면 성실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인은 종래 그 어떤 이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신라에서 고려에 걸친 6, 700 년간은 佛法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여…燒香 燃燈 속에 그들은 도취하고, 줄곧 그러한 내적인 생활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최근 500년은 宋學의 典籍 속에서 그들이 공명할 수 있는 것을 抽象하여, 그것에 의해 종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조직<고려조에 송나라 사신이 下民에까지 보급된 예절에 놀랐다고 하는 걸 보면, 그것은 유교의 倫常과는 관계가 없는 민족생활의 특징이다>을 충실히 미화”²⁰⁾했다고 주장한다.

마에마는 『조선고가요집』의 서문에서, 조선문화가 동양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실질을 위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를 앞서 본 편지글과 결부시켜 보면, 손진태에 대한 마에마의 비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조선문화를 중국문화의 아류라고 폄하하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은 전연 그렇지 않다.’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찬란한’ 불교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조의 유교문화 역시 단려하기 그지없다. 중국의 유교를 ‘무조건 모방 한 게 결코 아니다. ‘송학의 전적 속에서 조선인들이 공명할 수 있는 것을 추상하여, 그것을 본래의 예절바른 가족 중심의 사회조직과 결합시켜 ‘단려한 유교문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당시의 조선인들은 “반도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예의의 나라 군자국이라 자신하고 있었고, 동시에 사치가 천시되고 淸溪한 취미가 더욱더 향상되었음은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²¹⁾ 그런데도 손진태는, 조선조의 지배계급이 ‘支那文學을 무조건 모방하여 그것을 읊조리거나’ 한다고 ‘피상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실은, 지나문학은 조선 사람들에게 잘 섭취되어 (지나의) 원형이 아닌 조선의 것이 된 게 사실”²²⁾인데도, 손진태가 이를 ‘폄하한다’고 마에마는 비판하고 있다.

20) 위의 논문, 5~7쪽

21) 고려대학교 박물관(편), 앞의 책(2002b), 142쪽

22) 위의 책, 142쪽

둘째, 조선의 ‘고가’에 보이는 조선인의 삶과 관련하여 ‘조선인은 비참한 생활을 계속해왔으며, 그래서 줄곧 지지러져 있다가 때론 비분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고 손진태는 ‘비평과 추단’을 내놓은바 이 역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마에마는 비판한다. 앞서 본 서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본디 조선인의 민족생활은 호족들의 할거와 봉건제의 부재로 말미암아 남의 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적개심이 고무’될 필요도 없었다. 본디 ‘資財에 대한 집착이 악한 까닭에 호화와 사치에 대한 열망도 강하지 않고, 따라서 늘 ‘안분지족하며 물질 생활을 영위 해 왔다. 그런데도 작고 허름한 주거와 불품없는 살림살이와 같은 그저 ‘외관만을 보고서’, 이를 ‘폭정의 결과’라든지 혹은 ‘萎靡와 퇴폐의 현상’이나 ‘遊惰의 산물’ 등이라고 속단하는 이들도 많은데, 그러한 속단이야말로 조선인의 전통적인 생활을 폄하하는 ‘폭력적인 태도’라고 마에마는 비판한다

손진태의 ‘미숙한’ 推斷과 달리 조선인은 결코 ‘비참한 생활을 계속 하지도 않았고, 또 ‘줄곧 지지러져 있’지도 않았다. 그들 중에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는 극히 드물고, 실은 모두 분수에 상응하여 근면 성실하게 생활을 해왔다. 결론적으로 마에마는, 조선인의 전통적인 민족생활을 ‘ 폄하하는 “ 歌文 문학의 비평과 추단은 모두 빼버리고, 극히 간단히 그 분류에 관한 略解의 설명을 집어넣는” 게 “당신 저서의 가치를 높이는”²³⁾ 지름길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러면 손진태는 당시 ‘조선학의 대 권위 인 마에마의 이런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인 것일까? 마에마가 ‘최후의 교열을 본 당시의 원고와 위의 편지글에 대한 손진태의 답장을 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그것을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다. 하지만 『조선고가요집』의 「序說」을 보게 되면²⁴⁾ 어느 정도의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위의 두 가지 비판 중에서 첫 번째의 것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조선의 지배계급은 중국문화의 모방과 숭배로 일관했다고 「서설」의 여기저기서 손진태는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조선은 문화적으로 말하면, 최근세까지 거의 지나의 일부였다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 즉, 지식계급은 모두 지나의 문자

23) 위의 책, 143쪽

24) 전체적으로 보아 조선의 ‘고가요’에 대한 ‘비평과 추단’은 절제되어 있는 느낌이다. 그 대신 ‘고가’의 역어와 명칭, 종류, 형식, ‘고가’ 문헌의 원본, 同書에서의 ‘고가’의 배치 방식, 譯歌의 양과 질, ‘고가’의 개관에 대해 차례대로 간략한 해설을 붙이고 있다

를 사용하고, 지나의 문학을 읽고, 지나 사상의 소유자였다”²⁵⁾라든가, “과거 조선의 지식계급은 모두 지나문화의 모방자이며 숭배자였기 때문에 자기 나라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의 시조는 결코 일본의 萬葉集의 노래)처럼 상하 일반에게 존경되지 않았다”²⁶⁾ 혹은 시조의 “외관을 보게 되면, 거기엔 지나 냄새가 심하게 배어 있다.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이천 수백 수중에서 지나의 인물이나 사상, 경색, 문장 등을 노래 속에 집어넣지 않은 것은 아마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²⁷⁾이다와 같은 대목을 들 수 있다.

다음, 두 번째의 비판은 수용이 되었다고 보인다 “조선의 고가를 사상적으로 분류”해 보면, “讌飲·歡老·閑寂·好色·戀君·諧謔 등이 가장 현저한 조류이고, 慨世·尋訪·隱遁·別恨과 같은 게 그 다음의 조류일 것”이며, “이들 노래의 내용에 대해선 내가 여기서 愚見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²⁸⁾이라고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마에마의 편지글에 보이는 ‘조선인은 비참한 생활을 계속해왔으며, 그래서 줄곧 지지려져 있다’가 때론 비분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운운의 비평과 추단은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 문제는, 손진태가 1928년 당시 과연 ‘조선의 전통적인 민족생활을 위와 같이 ‘평화하는 폭력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일까? 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게 1920년대 중반에 발표된 손진태의 글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26년 동양협회의 기관지 『東洋』 5월호에 발표한 「朝鮮の古歌と朝鮮人」과 이를 우리말로 보완하여 같은 해 『新民』 7월호에 기고한 「시조와 시조에 표현된 조선사람」이라는 글이 눈길을 끈다. 이 두 논문에서 손진태는 “시조에 나타난 조선인의 생활 혹은 국민성과 같은 것을 고려와 李朝로 나누어 고찰하고”,²⁹⁾ 그 고찰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 중엽의 태평한 시대에는 여유가 넘쳐흐르고 해학이 뛰어난 한가로운 노래들이나 불교 맛이 많이 나는 노래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다. 그러던 게 고려

25) 손진태, 앞의 책(1929), 3~4 쪽

26) 위의 책, 21 쪽

27) 위의 책, 33 쪽

28) 위의 책, 35 쪽

29) 손진태, 「朝鮮の古歌と朝鮮人」, 『東洋』, 제29권 제5호(1926a), 36 쪽.

말기부터 이조에 걸쳐선 내우외환이 끊일 날이 없었던 탓에 국민성에도 비상이한 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조 작품상에도 슬프고 적적한 것 퇴폐적인 것, 비장한 것 등이 나타난 것 같다³⁰⁾

중세의 조선 사람들은 비교적 평화한 생활을 내보였으며, 그들은 해학을 좋아하였고, 소박한 마음을 가졌었다. 그러나 고려 말로부터 그들의 생활은 점점 이기적으로 물질적으로 되었으며, 외적의 침입과 무의미한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은 근본적으로 동요하기 시작되었다. 이조 초기의 小康이 있었으나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의 임란호란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활은 다시 구할 수 없도록 파괴되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래서 중세의 광명한 희망에 넘치는 해학적 민족성은 점점 침울하게 절망적으로 되고, 필경은 은둔적 퇴폐적으로 되었다.³¹⁾

요컨대 평화롭고 태평스런 고려시대에는 여유롭고 해학적인 시조가 많았다. 그런데 고려 말 이후부터 ‘내우외환’이 거듭된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슬프고 적적하고 퇴폐적이고 비장한’ 시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동시에 중세 고려의 ‘광명한 희망에 넘치는 해학적 민족성은 점점 침울하게 절망적으로 되고, 필경은 은둔적 퇴폐적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지적은 1926년 일본에서 일본어로 발표한 ‘국민(민족) 문학’론에서도 산견된다. 가령, “조선인은 근세가 되고나서 매우 고적하고 비통한 민족성을 갖게끔 되었다. 그래서 철이 들 무렵부터 부르는 아이들 노래에는 대부분 그러한 경향의 노래가 많다”³²⁾라던가, 조선의 자장가 중에서 “비교적 근세의 소산이라 생각되는 노래들은 어느 것이나 슬픈 것뿐이다”, 혹은 “本誌(『東洋』) 8월호에서 나는 조선의 여성이 모두 催淚物을 좋아한다는 것을 말했는데, 비참하고 슬프고 눈물겨운 그들의 생활에서 나온 노래에 천진난만하고 쾌활한 게 있을 리 없다”³³⁾와 같은 지적들이다.

인용문에 보이는 ‘근세’란 조선시대를 말한다. 이 ‘근세 조선의 ‘내우외환’에 따

30) 위의 논문, 35쪽

31) 손진태, 「시조와 시조에 표현된 조선 사람」, 『신민』, 제2권 제7호(1926b); 『손진태선생전집』(6)(태학사, 1981), 561~562쪽

32) 손진태, 「朝鮮の童謡」, 『東洋』, 제29권 제9호(1926d), 89쪽

33) 손진태, 「朝鮮の子守唄」, 『東洋』, 제29권 제8호(1926c), 63쪽

른 민중생활의 파괴로 말미암아, 조선의 민중들은 ‘비참하고 슬프고 눈물겨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매우 고적하고 비통한 민족성을 갖게끔 되었다’ 그런데도 “조선의 소위 위정자들은…정권쟁탈에만 눈이 멀어 사색당파를 일삼고 있었다. “그러한 반목과 충돌이 국가를 위한 혹은 민중생활을 위한 투쟁 같았으면 존경할 바이겠지만, 支那式의 유학적 도덕률로 사소한 일을 엉터리로 하여 거기(에) 각각 진부한 해석을 가하여, 실상은 정권쟁탈의 도구를 삼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나의 유학이 조선문화에 많은 공헌을 함과 동시에 커다란 치명상을 남겨놓은 것은 부정치 못할 일이다.”³⁴⁾ 바로 그 ‘공헌’과 ‘치명상’에 관해 손진태는 일본의 독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문화적으로 보면 지나는 조선에게 있어 고마운 나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학자들이 지껄여야 할 이야기로, 조선 민중의 실생활을 위협하고 조선의 민족성을 퇴영적으로, 퇴폐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도 역시 지나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지나를 존경하지만 史實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³⁵⁾고 말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손진태는 조선시대의 시조와 거기에 표현된 조선인의 삶과 민족성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아울러 그것을 초래한 조선시대의 권력계급과 그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한 ‘지나식의 유학적 도덕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26년의 시조론에 보이는 이러한 부정적인 묘사와 비판적인 태도는, 1928년에 ‘최후의 교열’을 받기 위해 마에마에게 가져간 원고에서도 관철되고 있었을 것이다. 앞서 본 편지글에서 마에마가 손진태를 비판한 내용이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안분지족’의 평화로운 조선인의 삶과 조선의 주체적인 ‘단려한 유교문화’ 마에마의 이러한 목가풍의 조선 인식에서 보게 되면, 손진태의 위와 같은 부정적인 묘사와 비판적인 태도는 조선의 전통적인 민족생활을 폄하하는 ‘폭력적인 태도’로 비쳐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와세다대학 사학과 재학 시절 이미 쓰다(津田左右吉)로부터 중국형의 전제적인 권력지배와 형식적인 유교도덕의 폐해³⁶⁾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³⁷⁾ 손진태로서는, ‘지나문화의 모방자이며 숭배자인 조

34) 손진태, 앞의 논문(1926b), 548-549쪽

35) 손진태, 앞의 논문(1926a), 37쪽

36) 이에 대해서는 줄고, 『손진태학의 기초연구』, 『한국민속학』 제8호(1996), 105쪽 참조

선시대의 지식계급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들이 남긴 ‘지나풍’의 시조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러한 묘사와 비판이 ‘暴戾的’이나,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조선의 사대주의 지배 담론과 그로 인한 ‘멸망의 이야기’와 연동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조선인을 유교도덕의 인습과 형식적인 제도에 짓눌려 생활력을 잃고 망해버린 민족이라 간주하는, 쓰다 류의 식민주의 지배 담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손진태가 해방 후에 추구한 ‘신민족주의’ 사학의 듀얼리즘과도 공명하고 있다. 즉, ‘균등한’ 씨족 공동사회의 이상화와 그에 대치되는 ‘불균등한’ 전체적 귀족국가론의 배경에는 중국문화와 유교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III. 농촌오락의 ‘총력체제화’

그런데 이훈상은 「의도적 망각과 단선적 역사 서술: 일제시대 조선후기사 인식과 서술」이라는 자극적인 논문을 통해, 일제 식민지기에 나온 연구에서 “조선왕조는 사대주의로 본질화되고 이를 초래한 유교 이념은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되었다”³⁷⁾고 지적한다. 일제의 식민주의 지배 담론뿐 아니라 민족주의에 기초한 한국인의 저항 담론에서도 조선시대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그에 따른 ‘의도적인 망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일상의 기억 속에 양반 지배 엘리트들의 특권과 수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분식되어 살아있는 조선시대 역사를 대신하여”, “민족 공동체의 잔존물”로서의 민속 지식이 조선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적 대체물로 등장하게 되는바, 그러한 “조선시대에 대한 혐오와 이상화

37) 실제 쓰다는 『조선고가요집』에 부친 서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지나문화, 지나사상의 압박을 받은 게 일본보다도 훨씬 강했던 사실과 지식계급의 주의가 官府와 관련된 것에만 집중되었던 사실, 그리고 민중의 지위와 생활이 일본의 경우보다 낮았던 사실로 말미암아, 이러한 (시조와 같은) 가요는 일본에서보다도 훨씬 심하게 경시되었다 지금도 역시 그러한 餘贅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모양이다.” 손진태, 앞의 책(1929), 2 쪽

38) 이훈상, 「의도적 망각과 단선적 역사 서술: 일제시대 조선후기사 인식과 서술」, 『진단학보』 제88호(1999), 325 쪽

된 민속 지식에 대한 희구가 가장 두드러진 사례를 손진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³⁹⁾고 한다.

이훈상이 지적한 ‘조선시대에 대한 혐오’는 앞서 인용한 손진태의 주장에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상화된 민속 지식에 대한 희구에 대해선 실증적인 자료에 기초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줄고에서 살펴 보았듯이 해방 이전의 손진태에게 “발견의欣喜와 학적 감흥을 무한히 주는 것”⁴⁰⁾은 土民의 土俗이었고, 그 조선의 토속이 손진태에게 ‘이상화된 민속 지식’으로 실제 ‘희구’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따져볼 문제이기 때문이다. 손진태의 토속 인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줄고⁴¹⁾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일제 말기에 발표된 문제의 농촌오락론에 대해 살펴보겠다.

종래 학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글이지만 손진태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그러니까 ‘신민족주의 조선사의 저술을 기도’했다는 바로 그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두 편의 농촌오락 진흥론을 발표한다. 하나는 친일 월간지 『삼천리』 1941년 4월호에 기고한 「전통오락 진흥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같은 해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인 녹기연맹의 기관지 『綠旗』 6월호에 일본어로 기고한 「農村娛樂振興問題について」란 글이다.⁴²⁾

우선 전자가 실린 『삼천리』 4월호를 펼치면, 당시의 이른바 ‘신체제’에 복무할 조선의 문화운동을 주제로 문화와 관련된 여덟 단체 간부들이 벌인 좌담회 내용과 ‘문화단체의 진용’이 보인다. 이어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야나베(矢鍋永三郎) 문화부장’과 농·산·어촌의 건전오락을 이야기한’ 대담 내용이 뒤따르고, 그 뒤를 이어 ‘향토예술과 농촌오락의 진흥책’을 테마로 특집이 꾸며진다.

그 배경에 대해 삼천리사는, “국민총력조선연맹 내에 이밖 에 문화부가 설치되어서 솔선하여 조선의 향토예술과 농·산·어촌의 건전한 오락을 진흥시키기로 진력하고 있다. 이제 본사에서 민간에 계신 민속학자 諸氏에게 청하여…그 고견을 들어 이 운동에 박차를 가하려 하노라”⁴³⁾고 말한다. 요컨대 일본제국의 “총력

39) 위의 논문, 331쪽.

40) 손진태, 「토속연구여행기」, 『손진태선생전집』(6)(태학사 1981), 465 쪽

41) 남근우, 「토민의 ‘토속’ 발견과 ‘신민족주의」,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민속원 2003).

42) 후자의 농촌오락 진흥론은 내가 찾아내어 앞의 줄고(2003)에서 거론한 바 있다. 「농촌오락의 ‘총력체제화」는 거기서 거론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을 기울여 노동활동의 倍加를 필요로 하는 현 시국 하”⁴⁴⁾에서 조선의 “국민에게 堅忍持久의 정신을 양양시키기 위한”⁴⁵⁾ ‘건전오락’ 진흥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민속학자들의 ‘고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그 ‘고견’ 청취에 응한 ‘민속학자 諸氏’는 이능화를 필두로 고유섭, 유자후, 손진태, 이극노, 송석하, 김윤경, 황의돈, 최현배, 유창선, 김병하 등이다.

문제의 손진태는 「전통오락 진흥 문제」의 첫머리에서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야나베 문화부장이 조선의 향토 오락예술에 대하여 그 진흥을 圖하신다는 것은 매우 時宜에 適한 탁견”이라고 말하고, 농민의 전통오락을 진흥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즉, “위정자 또는 지도자와 농민간의 情的 융합, 농민생활의 윤택(과) 명량, 향토애의 조상”이 그것으로 이는 “現下 비상시국에 있어서 뿐 아니라 평상시에 있어서도 필요 불가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처럼 發案한 농촌오락 진흥계획이 그들에게 도로혀 의무적인 고통을 주지 않게 하자면 처음부터 신중한 입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들의 요구와 그들의 요구가 합치하는 점에 입안의 근본정신이 있음”⁴⁶⁾을 지적한다.

여기서 손진태가 말하는 ‘그들’이란 물론 식민지 조선의 농민들이다. 그리고 ‘우리들’이란, 중일전쟁 이후의 총력전 체제를 배경으로 농촌오락의 진흥이라는 ‘매우 時宜에 適한 탁견’을 제시한 ‘야나베 문화부장’과 같은 ‘위정자’와, 그 ‘탁견’에 따라 농촌오락 진흥계획을 발안한 총력연맹의 ‘지도자’들 및 거기에 ‘고견’을 보탠 손진태를 비롯한 ‘민속학자 제씨’를 말한다. 그러한 ‘우리들의 요구와 그들의 요구가 합치하는 점에 (농촌오락 진흥계획) 입안의 근본정신’이 있으며, 이를 통해 양자의 ‘정적 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⁴⁷⁾ 아울러 손진태는, 가령 農事契와 같은 “관습은 창조정신이며 공동일치 정신의 함양 상에도 대단히 필요한 전통이니 이것을

43) 『삼천리』, 1941년 4월호, 549쪽.

44) 『朝鮮の郷土娛樂』(조선총독부, 1941). 책머리에 보이는 國民總力課長의 「序」 참조.

45) 村山智順, 「半島郷土の健全娛樂」, 『朝鮮』, 제80호(1941), 47 쪽.

46) 손진태, 「전통오락 진흥 문제」, 『삼천리』, 1941년 4월호(1941a), 559~560 쪽.

47) 그 好例로 손진태는 함흥의 답교 행사를 들고 있다. 즉, “昨日 매일신보를 보니 함흥 특유의 萬歲橋 踏橋 행사가 오래간만에 부흥된 모양인데, 萬餘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니 도지사가 친히 이것을 참관하였다고 전한다.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함남 도지사의 취한 바와 같은 이러한 위정자의 태도이다. 이러한 향토애의 태도는 爲政上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며 昔日의 관찰사나 군수들도 행하였던 바이다”[손진태, 위의 논문, 559쪽]라고 말하고 있다.

참작하여 총력연맹 문화부에서 適宜의 기본적 입안을 하고, 여타의 細點은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 지도자가 선처하도록 할 것”⁴⁸⁾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녹기연맹⁴⁹⁾ 기관지 『綠旗』의 ‘생활과 오락’ 특집(1941년 6월호)에 기고한 「農村娛樂振興問題について」로 이어진다. 그 첫머리에서 손진태는, “나는 종래 농촌의 오락, 신앙 기타 민속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 민속학적 연구를 시도해 왔지만 이를 오늘날의 우리들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한 실천적인 방면의 민속학 연구는 송석하가 선각자이며, 사리원의 봉산탈춤은 완전히 그의 열의와 노력으로 부활된 것이라 치켜세운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전체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녹기연맹에서 일찍이 이 점에 주의하여 각 방면의 의견을 끌어 모으게 된 데에 매우 敬服할 따름”이라고 한다. 이어 농촌오락 진흥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의 농촌오락 진흥론의 본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금일까지 우리들은 농민의 전통적인 오락에 대해 장점보다 오히려 그 결점을 더욱 많이 보아온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다 하게 그 전통오락을 장려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에 제한을 가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던 것 같다. 결국 그것은 위정자가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식자의 무성의 때문도 아니며, 요컨대 자유주의 사상의 죄였다. 오늘의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비로소 농민생활에 관한 新體制 편성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舊體制 이전의 체제 이른바 舊舊體制 중에서 總力體制를 찾아내려고 하는바, 이에 전통오락을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舊舊體制를 總力體制化하는 것도 新體制의 한 요소가 된다.⁵⁰⁾

조선인의 근집이 쉽게 허용되지 않던 일제 치하에서 농촌오락을 비롯한 조선의 향토오락은 제한과 통제의 대상이었다. 우가키 총독의 ‘농촌진흥운동’이 펼쳐지기

48) 손진태, 앞의 논문(1941a), 561 쪽

49)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 녹기연맹의 성립과 활동에 대해선 정혜경·이승엽의 「일제하 녹기연맹의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호(1999) 참조

50) 孫晉泰, 「農村娛樂振興問題について」, 『綠旗』, 제6권 제6호(1941b), 151 쪽

시작한 1932년까지는 적어도 그랬다 사정이 그리한데도 향토오락이 진흥되지 못한 것은 식민지 조선의 권력을 쥔 ‘위정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 또 민속학과 같은 ‘식자의 무성의 때문도 아니며, 요컨대 자유주의 사상’ 때문이라고 손진태는 주장한다.

그러면 손진태가 향토오락 부진의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는 ‘자유주의 사상’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잠시 조선의 문화정책을 주무르던 ‘총력연맹의 야나베 문화부장’의 「半島文化の新體制」를 살펴보자. 조선총독부 기관지 『朝鮮』 1941년 4월호에 기고한 이 글에서 ‘자유주의 사상’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서구의 자본주의 체제를 배경으로 한 개인주의적인 사상과 풍조를 말한다. 이 “서구적 자유주의”는 “일본적 국민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중일전쟁을 전후로 전자에서 후자로의 방향 전환이 문화면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⁵¹⁾ 바로 그 ‘일본적 국민주의’, 즉 황국신민주의에 대치되는 서구적 ‘자유주의 사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향토오락이 ‘진흥’되지 못하고 인멸의 길을 밟게 되었다고 손진태는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중일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비로소 농민생활에 관한 신체제 편성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국민총력조선연맹의 문화부에 의해 향토오락의 ‘진흥’이라는 ‘時宜에 適한 塔件’이 제시되었다. 바꿔 말하면 “(大)東亞共榮圈 건설의 대사업”⁵²⁾을 위한 ‘신체제 하에서 인멸되어 가던 조선의 “향토오락에 시대의 각광”⁵³⁾이 비취게 되었다.⁵⁴⁾ 손진태의 표현을 다시 한 번 빌리면, 조선 재래의 ‘舊舊體制’ 중에서 總力體制를 찾아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통오락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 그 ‘총력체제’에 부합하는 전통오락을 ‘진흥’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일까? 손진태는 그 ‘장점’을 다섯 가지 제시한다. 첫째, 전래의 농촌오락은 “가장 값싼 농민 보건운동”이며, 아주 적은 비용으로 게다가 시간과 지도요원 없이 하루아

51) 矢鍋永三郎, 「半島文化の新體制」, 『朝鮮』, 제11호(1941), 5 쪽

52) 위의 논문, 7쪽

53) 《매일신보》, 1938년 12월 27일치

54) 193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는 향토오락 ‘진흥’ 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그 식민지 오락 정책에 ‘조선민속학’이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줄고,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 송석하의 문화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5 권 제2호(2002) 참조

침에 ‘진흥’시킬 수 있다. 둘째는 서구적 개인주의 풍조로 급격하게 쇠퇴한 “互助·협동정신(을) 함양”할 수 있으며, 셋째는 농민 “정서에 윤택을 주고 명량을 주며, 또 생활에 활기를 주고 노동에 유쾌함을 준다. 넷째는 “애향심 愛土心을 강화함으로써 離農을 완화할 수 있으며, 다섯째는 “관민간의 감정 융합으로 이제부터 이것(전래 오락)을 장려하여 그들과 함께 이것을 즐기게 된다면 양자를 융합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농악과 율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씨름, 그네 따위와 같은 “진흥시키고 싶은” 전래오락들을 구체적으로 들고 그 ‘진흥’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가령 “생활의 문제”와 관련하여 농민들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도시사람보다 우선하여 의복과 신발을 주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생활이 불안한 곳에 오락을 부여한다 해도 그다지 우리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며, “모처럼의 (농촌오락 진흥) 계획이 거꾸로 무거운 짐이 되어 고통이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점을 나는 걱정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⁵⁵⁾

이와 같은 손진태의 향토오락 ‘진흥론은 중일전쟁 이후의 총력전 체제하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발표한 「민중오락의 선도방침」, 그것을 부연한 무리아미(村山智順)의 「半島郷土の健全娛樂」 따위와 같은 ‘비상시국’의 오락정책론에 부응한 것이다. 요컨대 조선 전래의 향토오락 중에서 쓸만한 것을 추려내어 ‘건전오락’으로 갱생시켜, 그 ‘진흥’을 통한 명량 분위기와 ‘협동정신’을 조장함으로써 ‘銃後 조선’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그 증산활동에 필요한 堅忍持久 정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⁵⁶⁾

위에서 손진태가 말한 ‘우리들이 기대하는 효과’란 바로 이 건인지구 정신의 확보에 다름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두 편의 농촌오락 진흥론을 통한 손진태의 연구실천은 자신의 말대로 조선 고래의 ‘舊舊體制를 總力體制化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학으로서의 민속학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손진태, 그가 모처럼 선보인 “현재적 관상”⁵⁷⁾이 이른바 ‘生業報國’과 ‘健康報

55) 손진태, 앞의 논문(1941b), 152~153쪽

56) 자세한 것은 앞의 줄고(2002) 참조

57) 정창렬, 「1940년대 손진태의 신민족주의사관」, 『한국학논집』 제21·22 합병호(1992), 119쪽

國’을 위한 일제의 후생운동에 부응하게 된 셈이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오늘의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그 비상시국의 ‘총력체제’에 필요한 식민지 조선의 ‘가장 값싼 농민 보건운동’ 창출에 복무하게 된 것이다.

IV. ‘신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발생

지금까지 새로 발굴된 손진태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식민주의와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신민족주의’ 사관의 성립 문제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논의를 발판으로 삼아, 백남운에 대한 對他意識說과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영향설에 대해서도 그 당부를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 거론하고 싶은 것은 중일전쟁 이후에 본격화되는 일제의 ‘민족 정책론과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지’ 사회학계의 내셔널리즘론이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특히 고마쓰(小松堅太郎)가 주장하는 일련의 민족주의론, 그중에서도 일제 말의 ‘신체제 하에서 대동아 공영주의의 지배’ 담론으로 제시된 ‘新民族主義’는 손진태의 그것과 명칭은 물론이고 내용 면에서도 상통하는 점이 적지 않게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손진태가 고마쓰의 민족주의론을 접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할 길은 현재 없다. 그의 논문이나 책들을 손진태가 인용하거나 거론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고마쓰의 『新民族主義論』이라는 책은 ‘보성전문학교도서관’의 관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손진태가 동 도서관의 관장을 역임하던 시절에 입수된 것이라 생각된다. 1940년 4월에 발행된 이 책이 보성전문에 언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신체제 하의 사회상황과 출판사정 및 동 도서관의 수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 도서관에 많은 분량의 도서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리는 없을 테고, 따라서 관장으로서 도서관 업무를 도맡았던 손진태가 고마쓰의 『新民族主義論』을 접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소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던 때부터…동학 數友로 더불어 때때로 밀회하여 ‘신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을 토의하고 체계를 구상하였다”⁵⁸⁾는 손진태. 그가 ‘신민족주의’ 조선사 서술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고마쓰가 부르짖은 또 하나의 ‘新民族

主義'로부터 어떤 '이론 적인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추론해보는 까닭은 여기에 있으며, 무엇보다 양자가 주장하는 '신민족주의'의 유사성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이하, 이 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 '신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치성을 살펴보겠다.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 이른바 15년 전쟁기를 통해 일본의 사회학과 인류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게 민족론의 영역이다. 이에 관한 조직적인 연구는 1934년 『年報社會學』에서 구성한 특집 「民族と國家」가 최초이며, 이후 시국의 추이와 함께 저널리듬에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를테면 1939년 『理想』 10월호의 특집 「民族性の究明」이나 1941년 『思想』 11월의 특집 「民族の問題」와 같은 것들로, 이들 특집의 주제만으로도 점차 민족정책의 특색을 강화해 가는 민족론의 전개 상황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족론 성행의 배후에는 제1차대전 후 더욱 심각해진 민족 문제와 나치 독일의 성립, 그리고 제2차대전의 발발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인종 문제의 대두가 존재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총력전 체제의 현실적인 필요가 존재한다. 즉, 중일전쟁으로부터 태평양전쟁에 돌입함에 따라 예전의 만몽과 조선 대만에서 뿐 아니라 더욱 광범위한 남방의 새로운 점령지역에서의 민족정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국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요청이 민족론과 민족주의론을 성행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⁵⁹⁾ 고마쓰의 경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연보에 의하면 고마쓰는 1894년 야마가타 현에서 태어나 1920년에 메이지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미쓰이 은행에서 근무를 한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 근대 사회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다카다(高田保馬) 문하로 들어가 이론사회학을 공부한다. 그리고 1926년 간사이가쿠인(關西學院) 대학의 교수가 된 고마쓰는 1928년의 『社會學理論』을 필두로 많은 연구 성과를 내게 된다. 민족론과 관련된 저서는 중일전쟁 이후에 집중되는바 가령 『民族と文化』(1939), 『新民族主義論』(1940), 『民族の理論』(1941), 『民族と世界史』(1943), 『民

58) 손진태, 앞의 책(1948<1981>), 282쪽.

59) 비교적 식민지정책과 무관했다고 알려진 일본의 '一國民俗學' 조차도 야나기타(柳田國男)의 고회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동아민속학'을 구상하고, '學域奉公'과 '學術報國'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실제적인 시국 협력' 방안을 모색했을 정도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야나기타(柳田國男) 민속학과 식민주의·조선민속학에의 관여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 제2호(2006) 참조.

族』(1945) 등이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1943년에는 문부성 직할의 국책연구소인 민족연구소⁶⁰⁾의 所員으로 입소하며, 거기서 그는 소장인 다카다와 함께 민족론과 민족주의 이론 구성을 주도하게 된다.

고마쓰의 민족, 민족주의론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民族と文化』에 수록된 「民族の本質」과 『新民族主義論』에 실린 「民族主義論」,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民族の理論』을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민족이란 ‘정도 개념’이다. 환언하면, “민족은 단지 혈연적 집단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언어를 機緣으로 하는 공동사회만도 아니며, 그리고 문화의 공통 범위만이 민족적 한계를 짓는 유일한 계기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민족은 최소한도의 결합강도에서부터 최대한도의 그것까지 여러 단계의 결합강도와, 결합강도에 부응한 외적인 여러 징표를 가지고 있는 사회범위 혹은 사회집단이다.”⁶¹⁾

이러한 ‘사회범위 혹은 사회집단’으로서의 민족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民族の理論』에서, 고마쓰는 서구에서 논의된 민족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리하고, 아울러 민족의 본질에 관한 종래의 학설을 ‘객관설’과 ‘주관설’로 나누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책에 수록된 「民族の本質に關する私見」에서는 민족을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민족결합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고찰한다.

여기서 주관적 요소란 민족적 편향이나 감정, 의식 따위와 같은 것들을 이르고, 객관적 요소는 다음의 두 가지로 양분된다. 즉 자연적 조건과 문화적 조건이 그것으로, 전자는 대개 민족 형성의 기초적 조건이 되고 이에 비해 후자는 파생적 조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연적 기초적 조건에는 혈연 혹은 지연<풍토를 포함한다>이 있으며, 문화적 파생적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언어, 문화, 역사적 운명 국가<정치적 공작, 국민 교육과 같은 것>와 같은 것”⁶²⁾들이다.

민족결합의 強度에서 보면 이 중 “자연적 조건인 혈연은 가장 기초적인 계기임과 동시에 최소한도의 결합을 보증하는 조건이다.”⁶³⁾ 이 ‘가장 기초적인’ 혈연 조

6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中生勝美, 「民族研究所の組織と活動」, 『民族學研究』, 제62권 제호 (1997) 참조

61) 小松堅太郎, 『民族と文化』(理想社出版部 1939), 40~41 쪽

62) 小松堅太郎, 『民族の理論』(日本評論社, 1941), 274쪽.

63) 위의 책, 285쪽

건의 바탕 위에 “요컨대 민족결합의 제 조건은 결합양의 累加之 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건이 퇴적하고 있는 민족일수록 그 단결이 강인하게 된다”⁶⁴⁾고 주장한다. 『新民族主義論』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

이상과 같은 객관적 요소는 각각 단독으로 민족 형성의 결정적 계기는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러 요소 중에 두세 개가 퇴적할 경우엔 민족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예컨대 언어를 같이하고 풍속과 습관을 공통으로 하고, 종교를 같이하고 게다가 동일 정권에 의해 통치를 받으면서 지역을 접해 생활하는 同血種族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인식되는 경우다. 하지만 이들 객관적 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주관적 조건을 결합할 때는 민족으로서 인식되기에 불충분하다.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 요소는 감정적 요소에 다름 아니다.⁶⁵⁾

고마쓰의 경우와 같이 민족 형성의 구성요소나 민족 결합의 조건과 강도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펼친 건 아니지만, 위와 유사한 발언은 손진태의 글에서도 散見된다. 이를테면, “조선사는 조선민족사이니 우리는 유사 이래로 동일한 혈족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운명 하에서 공동한 민족투쟁을 무수히 감행하면서 공동한 역사생활을 하여 왔고 이민족의 혼혈은 극소수인 까닭이다”⁶⁶⁾라든가, “우리가 유사 이래로 동일혈족으로 동일지역에서 언어, 의복, 풍속, 기타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외민족과의 무수한 투쟁을 감행하여 가면서 지금까지 민족을 지켜왔다는 이 뚜렷한 민족협력 민족투쟁의 중대한 사실은 장래의 민족국가에 있어 민족적 단결력과 민족적 친밀감을 더욱 굳세게 할 것이다.”⁶⁷⁾ 또는 “우리 고대사의 영역이 만주와 반도를 포괄하였던 것과 이 영역내의 주민이 동일한 혈족이었던 것은 언어상으로 종교상으로 의복상으로 主家上으로 기타 다방(면)의 문화상으로 불지라도 간단하게 증명되는 바이니 지식문화는…우리 주위의 제 민족에게는 전혀 없고 극동에서는 오직 우리 祖先族만이 만주와 반도에 걸쳐 소유

64) 위의 책, 287쪽

65) 小松堅太郎, 『新民族主義論』(日本評論社, 1940), 130~131쪽

66) 손진태, 앞의 책(1948<1981>), 291쪽

67) 손진태, 『국사교육의 제 문제』(1948a); 『손진태선생전집』(6)(태학사, 1981), 4쪽

하였던 것이다”⁶⁸⁾와 같은 발언을 들 수 있다.

위의 발언들은 모두 ‘신민족주의’를 내세운 해방 후의 글들에서 따왔다. 조선 민족이 단일민족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⁶⁹⁾ 게다가 손진태가 꼽고 있는 단일민족신화의 논거들은 앞서 고마쓰가 언급한 민족의 형성, 결합을 위한 ‘객관적 요소’들과 초록동색이다. 즉, 전자가 거론한 ‘동일혈족 과’ ‘동일지역’은 후자가 언급한 자연적 조건이며, 또 전자가 열거한 ‘언어, 의복, 풍속, 기타 동일한 문화와 ‘동일한 운명’, ‘공통한 민족투쟁’ 등은 후자가 말한 문화적 조건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객관적 요소’들의 累加와 퇴적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민족의 결합이 강인해지고 민족적 단결력은 굳세어진다. 양자 모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신민족주의’ 조선사 서술 과정에서 손진태가 강하게 의식했던 민족과 계급,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한 고마쓰의 생각은 어떠한가? 우선 『民族と文化』에서 그는 “인류사회의 기초구조가 계급인가, 민족인가”를 주제화한다. 그리고 “결론을 먼저 말하면, 발전론적으로 보아 민족은 계급보다도 근원적이다”라고 잘라 말한다. 민족은 “이른바 생성사회로서 최원시로부터 존재하는 기초사회”인 데 비해 “계급은 造成社會로서 경제적으로 기타 기능적 분화가 일어난 후에 출현하는 제2차적 단결”⁷⁰⁾이라고 한다. 그리고 『民族の理論』에서는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혈연공동의 의식을 가지고 언어와 풍속, 관습을 공통으로 하고, 혹은 문학과 가요, 무용 등을 공동으로 하는 한 지역의 주민이 이들 여러 요소를 달리하는 다른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봉쇄적 결합을 영위한다. 더욱이 역사적 운명을 공동으로 하게 되고, 혹은 대외적인 정치적 자치를 요구하게끔 되면 민족감

68) 손진태, 「조선 ‘돌멘’에 관한 조사 연구」(1948b); 『손진태선생전집』(2)(태학사 1981), 74~75 쪽

69) 마지막의 인용 문장이 들어간 돌멘론은, 손진태가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1933년의 돌멘론에 “다 대한 補正을 가”[위의 논문, 74~75쪽]한 글로, 물론 그 1933년의 돌멘론에는 위의 인용문이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보장’된 돌멘론을 포함한 위의 세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해방 후의 손진태는 ‘朝滿民族’의 동원·동족 관계에 기초하여 조선민족의 단일민족성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해방 이전 그가 견지했던 혼합민족설에서 보면 엄청난 ‘보장’이 가해진 것으로, 그 ‘보장’의 배경과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줄고(1998)를 참조하기 바란다.

70) 小松堅太郎, 앞의 책(1939), 71 쪽

정은 반드시 계급적으로 제약되는 게 아니다. 아니, 민족 전원이 거의 숙명적으로 다른 민족에 대해 敵性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 민족감정은 계급성을 희석하고 혹은 완전히 그것을 해소하게 된다.⁷¹⁾

다만 이 경우에도 민족감정의 기반에는 차이가 있어, 민족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성원은 민족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반해, 기타 일반 성원은 전자의 능동적인 지도 아래 수동적으로 민족결합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지도세력은 민족의 모든 구성원으로 하여금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려고 한다.” 여기서 ‘전체’란 “단지 민족 전 성원의 총계가 아니고, “전 구성원의 감정과 의지의 완전한 조화 위에 성립하는 결합의 총화”를 말한다

그러면 이 ‘완전한 조화’는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상호간에 남의 의지, 욕구와 조화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의 의지와 욕구를 부정하는 데서 성립한다. 그리고 민족의 총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급간의 모순을 불식시켜야만 하고, “민족의 모든 구성원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선 (개인의) 의욕충족 방식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⁷²⁾고 강조한다. 이 민족 전체의 ‘완전한 조화’ 위에 성립하는 민족결합을 고마쓰는 ‘민족전체사회’라 부르고 있다

한편 ‘신민족주의’ 조선사 서술에서, 손진태 역시 고마쓰의 경우처럼 계급보다 민족을 ‘근원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부분으로서의 계급이 아닌 ‘전체로서의 민족’의 발견을 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가령 『조선민족사개론』의 「自序」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계급의 생명은 짧고 민족의 생명은 긴 것”이며, “계급투쟁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민족 균등이 실현되는 날 그것은 자연 해소되는 문제다” 또 “민족의 영광은 민족 내부의 반목과 투쟁에 있지 않고, 민족의 전체적 친화와 단결에 있는 것”⁷³⁾이다. 그리고 “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족 전체의 균등한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假裝적인 민족주의 하에서 민족의 친화 단결은 불가능한 것은 과

71) 小松堅太郎, 앞의 책(1941), 324~325 쪽

72) 위의 책, 325~326쪽.

73) 손진태, 앞의 책(1948<1981>), 282쪽.

거의 역사와 및 금일의 현실이 명백하게 이것을 증명”⁷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과거의 역사와 금일의 현실이 증명한다는 ‘가장적인 민족주의’는 무엇인가? 다시 물으면, 손진태의 ‘신민족주의’가 지양해야 할 ‘민족의 친화 단결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그 위선적인 민족주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에 대해 손진태는 ‘신민족주의’ 「국사교육 건설에 대한 구상」을 밝힌 글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즉, 과거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수의 권력자를 위한 ‘봉건주의 사관’, 그리고 금일의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영미적 자유주의 사관 과 ‘소련적 계급주의 사관’이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원치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사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민주주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적 민주주의나 영미적 민주주의를 모두 원치 않는다. 그들은 모두 다수한 이민족을 포섭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지배를 꿈꾸는 강자들이다. 강자의 철학과 약자의 그것은 스스로 달라야 할 것이다. 소련적 국사교육은 민족 내부에 계급투쟁을 일으키어 민족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 자체를 부인하게 될 염려가 있다. 그리고 영미적 민주주의는 약소민족으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그들의 거대한 자본주의 속에 빠지게 하여 약소자는 더욱더 약소화하여 민족으로서의 발전을 꾀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 …신민족주의(민주주의적 민족주의) 사관은 그러한 동족상잔의 원인이 되는 계급적 불평등을 발본색원적으로 없애자는 것이니, 계급주의 사관처럼 계급투쟁을 도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유주의 사관처럼 방관 방임하는 것도 아니다. 봉건주의 사관은 말할 것도 없다”⁷⁵⁾

이처럼 세 ‘가장적 민족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신민족주의’ 구도는 일찍이 고마쓰가 되풀이 강조한 것으로, 그의 『新民族主義論』에는 위와 흡사한 주장이 산견된다. 가령, 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족이라는 유기적 전체의 발전을 기도하는 행동원리”인 까닭에, 시저나 징키스칸, 나폴레옹 등과 같은 “소수자의 권력적 욕망 충족을 위한…비합리형 제국주의와 달라야만 한다”⁷⁶⁾고 주장한다. ‘비합리형 제국

74) 위의 책, 281쪽

75) 손진태, 「국사교육 건설에 대한 구상」, 『새교육』, 제2호(1948), 48~49쪽.

76) 小松堅太郎, 앞의 책(1940), 16~17쪽

주의'라는 용어상의 차이는 있지만 손진태의 경우와 같이 소수의 왕후장상을 위한 '봉건주의 사관'을 가볍게 부정하고 있다

이어 고마쓰는 "민족주의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본격적으로 논한다 " 하나는 제국주의의 구실이 되는 민족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의 배격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주의"77)다. 1940년 현재의 "세계질서는(전자의) 舊民族主義 즉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의 기반 위에 서있으며, 다른 약소 제 민족을 압박, 착취하고 있는 두셋의 강대한 민족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78)고 주장한다.

고마쓰가 주장하는 '新民族主義'의 명분은 바로 이 '舊民族主義 즉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를 '배격'하여 그들로부터 '압박, 착취'를 당하고 있는 '약소 제 민족'을 해방시키는 데 있다. 그의 말을 다시 빌리면, "근세 자본주의적 자유주의나 개인주의의 제약을 받지 않고, 또 (자본주의라는) 근세적 세계질서의 否定者인 유물주의의 제약도 받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이 두 조류를 동시에 부정하여 보다 높은 단계에서 종합하는, 전체 봉사의 정신적 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이념"이 '新民族主義'다

고마쓰가 말하는 '근세 자본주의적 자유주의(개인주의)'와 그 '근세적 세계질서의 부정자인 유물주의'를 손진태의 표현으로 바꾸면, '세계 지배를 꿈꾸는' '영미적 자유주의 사관'과 '소련적 계급주의 사관'에 다름 아니다. 양자 모두 이 두 가지 '구민족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신민족주의'를 그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계급 간의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민족 전체의 '균등'이나 '조화'를 통한 단결이 필요하고, 국제적으로는 민족간의 전쟁이나 지배가 아닌 '친화·친선'이나 '공존·공영'이 요청된다고 되풀이 강조하면서 말이다

이상, '신민족주의'와 관련된 고마쓰와 손진태의 언설들을 훑어보았다. 다소 거칠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이 두 민족주의론이 상통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신민족주의'라는 명칭을 비롯하여 민족 형성의 구성요소나 민족 결합의 조건들, 계급의 부정과 민족에 대한 근원적 인식, 무엇보다 '구민족주의=제국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 안티테제로서 '신민족주의'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닮은 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차이가 없는 게 아니다. 짚어야 할 큰 차이는, 두 '신민족주의'가 발화된

77) 위의 책, 19쪽

78) 위의 책, 26쪽

시·공간과 그 정치성이다. 즉, 고마쓰의 ‘新民族主義’는 1940년 전후 총력전 체제 하의 일본제국에서 나온 것이며, 손진태의 ‘신민족주의’는 그로부터 독립한 대한민국의 해방공간에서 나온 것이다. 전자는 이른바 ‘八紘一宇’라는 대동아공영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창출된 것이며,⁷⁹⁾ 후자는 해방공간의 좌우갈등을 배경으로 한 “중도우파 혹은 중도좌파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역사해석에 응용한 것”⁸⁰⁾이다.

손진태는 그 ‘응용’ 과정에서 안재홍이 해방 직후에 발표한 또 하나의 ‘신민족주의’론에 “자극과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만, ‘신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안재홍이 최초로 발설한 것”⁸¹⁾이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그것은 일제의 어용 사회학자 고마쓰가 만들어낸 것으로, 손진태가 차용한 그 ‘신민족주의’의 이론적 배경에는 안재홍의 ‘자극과 영향’ 뿐 아니라 고마쓰의 『新民族主義論』을 비롯한 일련의 민족주의론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그 사상적 배후에는, 앞서서도 보았듯이 식민주의 사관에 결과적으로 동조했거나 식민지 문화정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로부터의 탈각이라는 해방공간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도문화 연구자 아파두라이는, ‘탈식민지화(decolonization)’가 식민지적 습관이나 삶의 유형들을 단순히 탈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였던 지난날의 과거와 나누는 대화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대화는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 속에서 언제나 복잡하고 모호한 모습을 띤다고 한다.⁸²⁾ 나는 아파두라이의 이 지적이

79) 앞서 고마쓰는 ‘신민족주의’가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와 유물주의, 이 ‘두 조류를 동시에 부정하여 보다 높은 단계에서 종합하는, 전체 봉사의 정신적 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이념’이라고 말했거니와, 그 ‘전체 봉사의 정신’이란 이른바 ‘八紘一宇’에 다름 아니며 “그것은 근세적 제국주의와 유물주의의 상호부정의 관계를 매개로 하여, 이 양자를 동시에 지양 방기하면서 한층 높은 질서에서 자기를 실천하고, 세계의 신질서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실천적 행동체계다[小松堅太郎, 앞의 책(1940), 82~83쪽]. ‘근세적 제국주의(자본주의)와 유물주의에 의해 부정되어 온 ‘대동아’의 모든 약소민족들은 이 “팔평일우의 이상에 의해 그 부정을 부정하여 소생하고 여기에 비로소 모든 민족의 생존권의 평등화가 실현되어…전체의 체계로서의 세계적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제국의 ‘신민족주의’에 의해 “내셔널리즘과 인터내셔널리즘은 변증법적으로 통일된다”(위의 책, 83쪽)고 고마쓰는 강변하고 있다

80) 한영우, 「손진태의 신민족주의 사학」,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 1호(1989), 609쪽

81) 위의 논문, 598쪽

82) Appadurai, A., “Playing with Modernity: The Decolonization of Indian Cricket,” C. A. Breckenridge ed., *Consuming Modernity: Public Culture in a South Asian World*, University of

해방공간에서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를 씻어 내거나 혹은 감추고자 했던 손진태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식민지 근대를 살아간 손진태의 학문과 사상은 예정조화론자들의 願望과 달리 조화로운 통합체가 아니다. 해방 이전의 문화민족주의에 기초한 저항의 ‘조선민속학’에서 해방 후의 ‘신민족주의’ 사학으로 귀결되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며 또 명확하거나 단순한 것도 아니다. 손진태의 ‘신민족주의’와 고마쓰의 ‘新民族主義’ 이 양자가 보여주고 있는 우연(?) 共鳴은, 해방을 맞이한 한국의 지식인이 자신의 식민지 과거와 닮은 대화의 모호한 그림자를 여전히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박물관(편),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1): 조선상고문화의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a.
- 고려대학교 박물관(편),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2): 우리의 민속과 역사』, 서울: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b.
- 김수태, 「손진태의 식민주의사학비판 재론」, 『한국사학사학보』 제2호, 한국사학사학회 2000, 95~138쪽.
- 김수태, 「신민족주의사학론」,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 서울: 민속원, 2003.
- 남근우, 「‘손진태학’의 기초연구」, 『한국민속학』 제28호, 한국민속학회 1996, 85~121쪽.
- 남근우, 「손진태의 민족문화론과 만선사학」, 『역사와 현실』 제28호, 한국역사연구회 1998, 212~253쪽.
- 남근우,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 송석하의 문화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5권 제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2, 95~126쪽.
- 남근우, 「‘토민’의 ‘토속’ 발견과 ‘신민족주의」,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 서울: 민속원, 2003.
- 남근우, 「야나기타(柳田國男) 민속학과 식민주의: ‘조선민속학’에의 관여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2006.

- 손진태, 「시조와 시조에 표현된 조선 사람」. 『신민』 제2권 제7호, 신민사 1926b(『손진태선생전집』(6)에 재수록, 서울 태학사, 1981).
- 손진태, 「전통오락 진흥 문제」. 『삼천리』 1941년 4월호, 삼천리사, 1941a.
- 손진태, 『조선민족사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48(『손진태선생전집』(1)에 재수록, 서울 태학사 1981).
- 손진태, 「국사교육의 제 문제」. 1948a(『손진태선생전집』(6)에 재수록, 서울 태학사 1981).
- 손진태, 「조선 ‘돌멘’에 관한 조사 연구」, 1948b(『손진태선생전집』(2)권에 재수록, 서울 태학사 1981).
- 손진태, 「국사교육 건설에 대한 구상」. 『새교육』 제2호, 1948.
- 이훈상, 「의도적 망각과 단선적 역사 서술 일제시대 조선후기사 인식과 서술」. 『진단학보』 제88호 진단학회, 1999, 321~349쪽
- 정창렬, 「1940년대 손진태의 신민족주의사관」. 『한국학논집』 제21·22 합병호, 한양대학교 1992, 115~143쪽.
- 정혜경·이승엽, 「일제하 녹기연맹의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호, 한국근현대연구회 1999, 329~369쪽.
- 주강현,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 刊記 당대 역사민속학자들의 역사민속학적 자료를 곁다려」.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 서울 민속원 2003.
- 한영우, 「손진태의 신민족주의 사학」.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8호, 독립기념관 1989, 589-609쪽
- 末松保和, 「前間先生小傳」. 『前間恭作著作集』 下卷, 일본 교토: 京都大學 國文學會, 1974.
- 小松堅太郎, 『民族と文化』. 東京: 理想社出版部, 1939.
- 小松堅太郎, 『新民族主義論』. 東京: 日本評論社, 1940.
- 小松堅太郎, 『民族の理論』. 東京: 日本評論社, 1941.
- 孫晉泰, 「朝鮮の古歌と朝鮮人」. 『東洋』 第29卷 第5號, 東洋協會, 1926a.
- 孫晉泰, 「朝鮮の子守唄」. 『東洋』 第29卷 第8號, 東洋協會, 1926c.
- 孫晉泰, 「朝鮮の童謠」. 『東洋』 第29卷 第9號, 東洋協會, 1926d.
- 孫晉泰, 『朝鮮古歌謠集』. 東京: 刀江書院, 1929.
- 孫晉泰, 「農村娛樂振興問題について」. 『綠旗』 第6卷 第6號, 綠旗聯盟, 1941b.
- 矢鍋永三郎, 「半島文化の新體制」. 『朝鮮』 第311號, 朝鮮總督府, 1941.
- 朝鮮總督府 編, 『朝鮮の郷土娛樂』. 朝鮮總督府, 1941.
- 中生勝美, 「民族研究所の組織と活動」. 『民族學研究』 第62卷 第1號, 日本民族學會, 1997.

村山智順, 「半島郷土の健全娛樂」. 『朝鮮』 第308號, 朝鮮總督府, 1941.

Appadurai, A., "Playing with Modernity: The Decolonization of Indian Cricket." C. A. Breckenridge, ed., *Consuming Modernity: Public Culture in a South Asian World*.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5.

국문 요약

종래의 손진태론에서는 처음부터 그의 학문과 사상을 조화로운 통합체로 이해하려는 호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가 남긴 다양한 텍스트들을 해방 후의 ‘신민족주의’로 수렴하려 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신민족주의’ 사학으로의 자연스런 귀결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손진태의 언설들은, 그것들이 발화된 시·공간과 그 정치사회적인 맥락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끊어 읽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의 ‘신민족주의’는 일제 식민주의 사관에 대한 안티테제로 우상화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우상화된 ‘신민족주의’를 재고하기 위해, 새로 발견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손진태와 일제 식민주의의 관계성을 세 가지 국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제2절의 「민족생활에의 ‘暴戾의 태도」에서는 1920년대 후반 당시 ‘조선학의 대 권위’였던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가 손진태에게 보낸 편지글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그 편지글의 시조론과 관련하여 손진태가 20년대 중반에 이미 일본어로 발표한 일련의 ‘국민(민족) 문학’론을 주목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의 시조와 거기에 표현된 조선인의 삶과 민족성을 손진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고찰함으로써, 그의 시조론이 사대주의 지배담론과 그로 인한 조선 ‘멸망의 이야기’와 연동하는 모습을 짚어보았다

또 하나의 국면으로, 제3절의 「농촌오락의 ‘총력체제화」에서는 손진태가 1941년에 발표한 농촌오락 진흥론의 식민주의를 살펴보았다. 익히 알려진 대로 손진태는 해방 후, “내가 신민족주의 조선사의 저술을 기도한 것은 소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던 때부터이었다”고 말하고 있거니와, 바로 그 직전에 발표한 시국 영합적인 농촌오락론의 존재는 우상화된 그의 ‘신민족주의’를 재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끝으로 제4절의 「신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발생」에서는 일본제국의 사회

학자 고마쓰 겐타로(小松堅太郎)가 펼친 일련의 민족주의론, 특히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대동아공영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제시된 ‘新民族主義’를 살펴보았다. 그 또 하나의 ‘新民族主義’가 손진태의 그것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지 고찰함으로써 종래의 연구에서 일반화된 ‘신민족주의’ 사관의 성립 배경을 재검토해보았다.

● 투고일 : 2006. 10. 20.

● 심사완료일 : 2006. 11. 27.

● 주제어(keyword) : 손진태(Sohn Jin-Tae), ‘신민족주의’(‘new-nationalism’), 식민주의(colonialism), 고마쓰 겐타로(Komatsu Kentaro<小松堅太郎>)